

辛酉派譜發刊辭

庚申大譜를 發刊한지 一年도 못되어 다시금 辛酉派譜를 刊行 하게 된 것은 庚申大譜가 十一卷으로된 尅大한 分量이기 때문에 保管도 어렵거니와 우리 宗族같이 大部分이 農漁 村에 生活根據를 가진 경우 譜冊代金 또한 巨金이라 마음은 있어도 族譜를 모시기 못하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다. 그래서 우리 副護軍公派 單獨으로라도 派譜를 모시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 되었다. 門中全體가 負擔없이 參與하게 하려면 積은 經費로 고루 모실수 있는 派譜를 刊行해야 되는데 이 일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編纂委員여러 분의 犧牲的 勞苦로 名下錢 一人當 壹阡五百원 만으로 結實을 보게되었으니 이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莫大한 出血이 있어 成事되었다고 믿어져 深深한 謝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다.

短時日 內에 數千名의 宗族들의 族譜를 初單으로부터 整單 編輯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일이나 關係者들의 不徹晝夜 獻身的인 精誠으로 予定된 期日內에 發刊하여 分配하게 되었으니 奇蹟에 가까운 일로 우리 門中の 慶事가 아닐수 없다

이 辛酉派譜가 우리 門中宗事를 大同團結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分岐點이 되어 힘찬 前進을 할 수 있기를 念願하면서 宗族 여러분의 健闘와 幸運을 빈다.

西紀一九八一年 辛酉十月一日

順興安氏 判官公派 長派 (副護軍公) 大宗會

二十六世孫 都有司 應淳 謹識

副護軍公 後裔 辛酉派譜 序文

族譜라고 하는 것은 祖上의 由來와 子孫의 分布를 밝혀서 崇祖敦睦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一家라고 하여도 서로 모르고 사니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 安氏는 始祖로 부터 燦爛하고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남기며 默默地 三百餘年을 살아 오면서도 宗族의 歷史인 族譜를 모시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一五四六年 丙午年에

後孫 文僖公 瑋와 그 同生 文簡公 玠 兄弟분의 積極的 周旋으로 族譜를 發刊하게 되었다. 으니 비로소 우리 安氏의 歷史와 世德과 傳統을 闡明 敘述하게 되었다. 그後

百一四年을 지나서 一六五九年 己亥年에 後孫 順溪君 世復이 三派의 빠진 後裔들을 修單하여 二卷으로 發刊하였으나 丙子胡亂으로 遺失 되어 哀惜하기 그지없다.

다시 順溪君의 孫子 通政大夫 應昌이 어려운 與件속에서 修單하여 大譜를 發刊하였으니 兩次 修譜刊行한 이들의 功績은 길이 讚揚할만 하다

修譜當時 이름은 있으나 生存者는 없고 늦게 出生하여 族譜에 오르지 못한者도 또한 많으며 子孫들이 四方에 흩어져 살고 있어 修譜 當時 서로 來往이나 連絡이 如意치

못하면 빠지게 되고 한번 빠지면 繼續 그後도 빠지기 쉽다. 또 國土가 兩斷되어 南北이 같이 修譜할수 없어 漏落된 宗族이 많았으니 이런 일을 生覺하면 痛嘆을 禁할수 없

다. 己亥譜後에도 十二回 大譜와 數三次의 派譜가 發刊되었고 特히 一九八〇年 庚申 大譜를 發刊하였으나 우리 判官公派 長派(副護軍公)에게는 未洽한 点이 많았고 漏落된

사람들이 많아서 大譜를 모신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文峴派와 같이 派譜를 모시기를 願
했으나 應하지 않아서 不得而 우리 長派만이라도 派譜를 모시기로 決定하였던 것이다.
그 무렵 舒川 板橋사는 安基重(柄元)이 自己집에 保有하고 있는 家乘을 가지고 찾아
왔기에 그 家乘을 仔細히 詳考 對照하여 보니 그 家乘은 只今으로 부터 百餘年前에
作成한 것을 비롯하여 二百餘年前에 作成한 것들이라 歷史的文獻이 稀貴한 우리 門中
에 매우 값진 文獻임을 알 수 있었다. 이 家乘은 近來 사람들이 造作할 수 있는 家乘이 아
니고 分明 數百年前에 만들어진 家乘이기에 누구도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 우리 副護軍公派의 長孫일뿐 아니라 全國 判官公派의 宗孫임을 從文書로 밝혀졌다
慎重을 期하기 爲하여 數次의 檢討 考證을 거쳐 大宗會를 會集 欣然이 決議하여 今般
派譜에 같이 參與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生覺하는 바이다.

나는 우리 長派의 落鄉地가 窮僻지고 落後된 곳이라 모든 면에 發展하지 못한 것을 平
素에도 徹天의 恨으로 生覺하는 터라 宗族여러분에게 한마디 부탁하고저 한다. 同姓同本
은 百代至親이라는데 하물며 우리 副護軍公派 後孫은 모두 十數寸에 不過한 가까운 近
親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마음 한뜻으로 祖上을 崇尚하고 宗族間
에 和睦하여 비록 落後된 곳에 살더라도 先祖들의 燦爛한 德望과 學問과 功績을 本받
아 모든 면에 앞서가는 자랑스럽고 繁昌하는 名門 巨族이 되기를 삼가 비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一年辛酉十月一日

二十六世孫 山水齋 德淳 謹序

辛酉派譜跋文

옛부터 族譜를 펴나가는 것은 宗派와 支派를 區別하고 昭穆과 次例를 밝히는 것으로 同族間에 崇祖思想을 涵揚하고 親和를 敦篤히 하자는 데 그意義가 있는 것이다. 더욱 우리 副護軍公派는 이나라 西쪽 尖端 가장 落後된 僻地에 先祖들이 落鄉 定着하게 되어 그의 後孫들은 刺戟없이 安逸하게 墓下에서 代代로 살게 되어 變化도 進出도 發展도 없이 오랜 歲月을 지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時代의 흐름은 막을길이 없어 우리 宗族들도 이제 墓下에서 사는 사람보다 外地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은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反面에 宗族意識이 解弛하여지기 쉽고 特히 젊은이들은 時代風潮를 따라 血統이나 宗族觀이 날로 等閑하여지는지라 族譜를 가다듬어 崇祖 親和에 參與하게 하는 것은 時急한 일이다. 이番에 우리 判官公派 長派(副護軍公)의 派譜를 發刊하게 된 것은 이러한 時代的인 要請에 依한 것이다. 지난年初에 大宗會에서 派譜의 必要性에 따라 決議하였으며 修譜編纂委員會를 構成하고 短時日內에 遠近各地에 散在하여 살고 있는 宗族들의 修單을 推進하여 마침내 우리의 손으로 譜冊을 發行하기에 이른 것이다. 大同譜는 尨大하여 고루 집집마다 모시기 어렵고 實用性이 적으며 작은 우리 宗族만의 派譜는 지나치게 單調을 뿐 아니라 近視眼的인 偏狹한 孤立性을 免키 어려워서 장바람직하고 알맞는 것은 判官公派 全體派譜가 나오는 것이다. 이 조그마한 우리

辛酉派譜가 머지않은 將來에 瑞山八峰의 文峴派(十世에 나누다) 安東의 佳邱派(七世에 나누다)에 刺戟제가 되어 判官公派 全體譜冊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작은 우리 宗派의 二百페이지 남짓한 譜冊에 各種寫眞 여러가지 追慕錄 參考될 數種 附錄 여러 先祖들의 行狀 碩德錄 그리고 宗會에 關係되는 모든 것을 收錄하자니 無理하지만 모두 編輯하였다. 이 譜冊이 나오게 되기까지 編纂委員들의 獻身的인 勞力으로 初單 整單 할수 있었으며 우리 門中 宗事에 언제나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德淳氏의 助言과 老齡에 序文 및 表題을 써주신 精誠을 感謝한다. 特히 門中 宗事에 언제나 勸은 일만 도말아 受苦하는 相允의 犧牲的인 奉仕 없이는 이 譜冊發行도 어려웠을 것이다. 끝으로 바라는 이 辛酉派譜가 할일 많은 우리 門中 宗事에 活力素가 되어 잘못된 것은 是正하고 未洽한 것은 積極推進하는 자랑스러운 門中으로 發展하는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줄이다.

西紀一九八一年辛酉十月一日

二十五世孫 修譜編纂委員長 鍾紀 謹跋

順興安氏判官公派長派(副護軍公)世譜

始祖 安子美 안자미

다보에 이름은 공석이
라보였다. 흥슬은 고
려신종조에 벼슬은 고
보승별장을 지내시다
후에 신호위상호군으
로 봉하였다. 他譜稱
公石高麗神宗朝興威
衛保勝別將追封神虎
衛上護軍

子永儒 영유

서기 一〇一〇년고려
신종辛酉生 一년고려
부사상호군 벼슬을 추
봉받으시다
韓譜儒作濡
西紀一〇一〇一年高麗
神宗朝辛酉生 〇追封
樞密院副使上護軍
배성세실전 〇영주군부
성원감곡사절차장
이永川郡守로있을때
서기 一五五八년영모
암을건축제전을두위
시향케하고수호군을
두웠다 〇매년十月二日
시향 경주박씨족보
에대아찬문충공인범
후에문하시충문열공
황이있어 송국제평
장사원산군절효공유
를낭고그아들에서탄
평장사제림군충문공
순이고순의사위는안
영유라하였다 우리
이전족보에는기재되
지않고박씨족보에의
하여기록한다
〇基榮州郡淳石面甘
谷里西麓智藏山辛坐
後孫判決事瑞宰永川
叔永慕菴置祭田又置
守護軍 〇每年十月二
日報祀 〇今按慶州朴
氏譜則大阿淪文忠公

子孚 부

서기 一〇二二년고려
고종庚辰生 一〇四四
년고종甲申 〇과에합
격하고종비슬은정의
대부밀직부사판도판
서에오르고후에수태
사문하시충에봉하섯
다 一八二二년壬午에
순홍용연사에모셨다
西紀一〇二二一年高麗
高宗庚辰生 一〇四四
年高宗甲申文科官正
議大夫密直副使版圖
判書致仕追封守太師
門下侍中西紀一八二
二年李朝純祖壬午享
子順興龍淵祠
순정군부인강주禹氏
부호은사동전성운조
부모인이고중조부는
생원부이다
配順政郡夫人剛州禹
氏父禮賓寺同正成允
祖考孫曾祖生員傳
는순홍이라하나표가
없어찾지못하고순홍
평리촌계단에기조홍
군공과갈이매년十月
一일시향모신다
墓順興云而無表未尋
每十月一日配享于順
興坪里村護軍公祀壇
〇漫浪大司成黃日撰
壇碑後孫進士夢伯撰
遺事見總錄

子珣 향

처음이름은裕(유)요
후에珣(향)이라하다
이조문종왕의이름으로
피하여처음의이름으로
부르다다시수보할때
뒤이름향으로고쳐부
를사은이라한다서기
一〇四三년고려고종
癸卯년에태어나시고
一〇六〇年庚申년에
문과에합격하시고며
슬은벽상삼한삼중대
광도침의중찬수문전
태학사에이르고일찌
기도학을박히는일을
자기책임으로알고공
자님을배우려한다면고
주자를배워야한다고
말씀하시고주자를경
모하는뜻에서스스로
호를 회현이라하고
선성신사및七〇자
(응자의제자)의화상
과제기악기 육경
제자사를비치하고반
과집록봉을헌납하고
학전을두웠다 〇서기
一三〇六년고려충렬
왕九월十二일졸하니
향년六四세요시호는
문성이니도덕과학문
이어나라에이르니文
이요백성을편안케하
고바른정치를펼쳤으니

子于器 우기

처음이름은천이고자
는허중이요호는죽우
자시다서기 一〇六五
년고려원종乙丑년에
나시고 一〇八二년충
렬왕때문과에합격하
시고벼슬은한림지제
시고벼슬은한림지제
고사림보문 二시제국
학제주전밀직사시현
민부총경 二전서지광
정대부경교침의찬성
사겸판전의사시다후
에순평군으로봉하다
一三二九년고려충숙
왕己巳九월十二日졸
하시니향년六五세였
다시호는문순이니부
지런이배우고문기리
좋아하니문기요사랑
으로화하고편벽되지
않고두루따르니순이
다 〇묘는문성공묘우
편산록子좌에안장하
고시향은위와같이시
다

子子 子慎 목

初諱遷字虛中號竹屋子
西紀一〇六五年高麗元
宗乙丑生 一〇八二年忠
烈王壬午文科歷翰林知
制誥詞林實文二待制國
學祭酒轉密直大司憲民
部總校 二典書至匡靖大
夫檢校 二典書至匡靖大
典儀寺事封順平君 一三
二九年高麗忠肅王己巳

順興安氏判官公派長派(副護軍公)世譜